

탈북 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조정아(통일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및 이주 과정의 경험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세 명의 탈북 청소년의 생애 사례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으로 이주 후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삶은 이들이 남한 사회의 질서에 일반적으로 적응하거나 동화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에 부딪히고 이를 넘어서고 가로지르고 때로는 활용하면서, 이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과정이다. 이들이 탈북 청소년으로서 부딪히는 경계는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배제와 차별화의 경계들과 서로 얽혀 있다. 경계 자체가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경계 가로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재구성을 동반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 탈북 동기, 탈북과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경계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구성되는 역사성을 지닌다.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들의 적응과 부적응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경계와, 차이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주제어: 탈북 청소년, 경계, 경계 경험, 타자화, 정체성, 생애사

1. 서론

최근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탈북 청소년 수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¹⁾ 2000년대 이후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연구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탈북 청소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 특히 학교 적응을 지원하려는 실천적 목적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부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이들의 학업 적응과 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크게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이 개인의 정신 건강, 심리적 특성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적응 관련 연구와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학교 적응 관련 연구로 대별된다. 연구방법론 차원에서는 소규모의 양적 조사나 질적 사례조사뿐만 아니라 전수조사에 가까운 양적 조사나 종단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KRF-2009-328-B00041).

1) 청소년기 규정은 각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통념상 20대 이전을 청소년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도 교육 지원 대상을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20대 중반 정도까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을 ‘탈북 청소년’이라고 칭해도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2년 6월말 현재 10세에서 19세 탈북 청소년 수는 3,351명이다(<http://www.unikorea.go.kr>).

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탈북 청소년 정착 지원에 기여했다.

한편, 탈북 청소년과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결핍의 서사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얻은 일종의 ‘상흔’을 안고 있고 현실 속에서 차별당하거나 부적응하는 존재이거나 복지 혜택의 수혜자로 묘사된다. 둘째, 적응과 동화의 서사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고유의 특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전제로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교섭해나가는 존재이기보다는 남한 사회의 가치와 문화체계, 의사소통 방식, 삶의 방식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셋째, 단절의 서사이다.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체험한 청소년기의 경험, 다양한 삶의 맥락과 경험의 결, 다양한 탈북 동기와 탈북 과정의 경험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변화 등은 이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탈북 청소년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북한에서의 삶의 기억은 봉인되어 잃어버린 채, 탈북 과정에서 얻은 원초적 상흔을 성공적으로 치유하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차별을 잘 극복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마침내 남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획득하여야 하는 존재이다.

근래에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은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관점에 대해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진웅은 일방적 적응을 목표로 하는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발적 비적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²⁾ 이부미는 탈북 청소년의 학교 및 직장 생활 경험에 대한 회고적 분석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국가와 국민

의식의 균열과 견고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다중의 정체성을 병리적 현상으로, 부적응의 단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건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동질성에 대한 지나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다원주의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윤인진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를 ‘약자 관점’이라 통칭하고, 이들의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남한 주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강점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김윤나는 탈북 청소년들의 상흔이 이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흔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성장의 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 심원, 최대석·조은희, 박서연, 이슬기, 오원환 등은 탈북 청소년을 삶의 기대와 전략을 지닌 정체성 교섭의 주체로 보고, 이들의 경험과 생애 전략, 정체성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김유정은 탈북 청소년의 가족 해체와 재결합, 이주, 정착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이산’이라는 시각에서 경험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⁵⁾ 맹영임·길은

-
- 2) 정진용,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제12권 2호(2004).
 - 3) 이부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5권 2호(2012).
 - 4)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41집(2012); 김윤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권 4호(2008).
 - 5) 심원,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4권 2호(2010); 박서연, “북한 이주 청년들의 진로 모색 과정을 통해 본 생애 전략”(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슬기, “북한 이주 1.5세대 여

배는 적응에서 통합으로 문제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탈북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상호 및 자기 집단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⁶⁾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이주 과정의 경험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남한으로의 이주 후 이들이 여러 겹의 생애 경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이라는 공간적·사회적·문화적 영토를 벗어나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한이라는 또 다른 공간적·사회적·문화적 영토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는 과정을 일종의 경계 체험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경계 자체가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경계 가로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재구성을 동반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 이후 다양한 경계를 어떻게 체험하고 이에 대응하는지, 그러한 경계 가로지르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해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방법론을 활용한다.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정체성을 과정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체성은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이며, 역사와 차이가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체성은 담론과 재현 속에 있

성들의 정체성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유정,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산 경험”(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6) 맹영임·길은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재현에 의해 구성된다.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신에 관해 말하는 이야기이다.⁷⁾ 개인이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은 곧 자신의 생애 경험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자 현재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 구술 생애사는 구술자가 살아온 객관적인 삶의 궤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구술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시차를 둔 여러 차례의 생애사 구술과 그에 대한 해석 작업은 구술이 이루어진 특정 시점 사이의 시간에 구술자가 겪은 생애 경험이 이들의 삶에 대한 관점과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 사회에서 생활한 지 3년에서 9년이 경과한 세 명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⁸⁾ 면접 대상자는 2009년 이후 연구자가 여러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청소년들 중 탈북 동기, 남한 거주 기간, 남한교육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세 명의 면접 대상자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2~3회씩 심층

7) Stuart Hall, *Ethnicity: Identity and Difference*(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344~346.

8)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는 사례의 양이 아니라, 사례 속에서 드러나는 경험의 내용에 주목한다. 즉 사례의 규모에 대한 선호와 사례들의 평균으로 객관성과 일반성을 추구하는 양적 연구의 패러다임과 달리, 질적 연구방법론에서는 사례를 통해 재구성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상호 주관적 설득력을 담보하는지에 주목한다. 생애사 연구에서 한 개인의 생애사는 그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거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보다는 특정 집단과 사회를 표상한다. 이희영, “탈북-결혼 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2012), 10쪽;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124쪽.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면접 대상자가 삶의 과정에 대한 생애 이야기를 구술한 후 연구자가 북한에서의 생활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면접 내용은 면접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사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주제화 작업을 통해 상호 비교의 관점을 도출하고, 사례를 재구성·해석하였다. 연구자가 재구성한 생애 사례와 이에 대한 해석을 면접 대상자가 읽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였다.⁹⁾

2. 사례 재구성

여기서는 세 명의 탈북 청소년의 생애 사례를 살펴본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났고, 입국 시 나이는 최규철과 류선옥은 10대 후반, 이효선은 10대 중반이었다. 최규철은 한국 사회에서 산 지 3년 남짓, 류선옥은 7년, 이효선은 9년이 경과하였다. 류선옥은 북한에서 대학교 재학 중 탈북하였으며, 최규철과 이효선은 중학교 재학 중 탈북하였다. 세 사람 모두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입국했고, 류선옥과 이효선은 탈북 후 입국까지 5개월, 1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최규철은 약 2년간을 중국에서 체류한 후 입국하였다. 류선옥과 최규철은 단독 탈북, 이효선은 가족과 동반 탈북하였다.

9) 면접 대상자의 신분 노출의 위험을 고려하여 면접 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수정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입국 후 국내에 연고자가 없었던 류선옥은 그룹홈(group home)을 거쳐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최규철과 이효선은 어머니와 남한 남성과의 재혼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동거하고 있다. 최규철과 류선옥은 국내에서 정규 중등교육을 이수한 경험 없이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이효선은 1년간의 초등교육과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다.

1) 최규철

(1) 풍요로운 세상을 찾아

20대 초반의 남학생 최규철을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봄, 그가 다니는 대학의 강의실에서였다. 당시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하던 연구자는 북한에서 모범생으로 생활했던 탈북 청소년을 면접하고자 했고, 탈북 청소년 지원 단체의 소개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규철을 만날 수 있었다. 입국한 지 2년 반 정도 지난 그는 함경도 억양이 조금 남아 있는 매우 예의 바른 말투로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과정,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약 1년 후 다시 만난 최규철은 여전히 각뚱한 태도로 그리고 서울 말씨로, 탈북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함경북도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최규철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회주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시기에 체제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체제의 선봉장’이었다. 아버지는 규철이 소학교 다닐 때 매일 『로동신문』을 강독시키면서 아들을 엄격하게 훈육했다. 공무원이었지만 고지식하고 개인의 이익을 챙길 줄 몰랐던 아버지로 인해 규철은 어린 시절에 옥수수밥만 먹었고, 그

것도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소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공부로 승부’를 했던 모범생이었다.

어머니는 그가 아홉 살 때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3년 뒤 어머니는 브로커(broker)를 보내 규철을 탈북시키고자 했고, 규철은 중국에 건너갔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오게 된다. 중국에서의 일주일만은 그때까지 아버지와 학교에서 배웠던 것,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그는 환한 불이 켜 있는 중국의 거리 풍경과 중국의 텔레비전에 비친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로동신문』에 있던 내용들은 진짜 너무나 뭔가 이런 허황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북송 후 3개월간 관리소에서 생활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아버지가 가르쳐주셨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와 관계도 서먹해지게 된다.

이후 외가에서 생활하게 된 최규철은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였지만 그때부터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내게 된다. 당시 같은 집에 살았던 이모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고가 개방적이었고, 규철은 이모의 장사 일을 돕기도 하면서, 이모와 함께 남한에서 내보내는 대북방송을 듣게 된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읽던 『로동신문』을 통해서만 파업이나 시위 등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면만을 접할 수 있었는데, 대북방송에서 들은 얘기들은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다. 2000년대 중반에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 크게 유행하여,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남한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문화에 더욱 민감했고, 최규철도 친구들과 같이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사회와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된다. 그는 남한 방송이나

영상매체를 보면서 남한이 “진짜 저렇게 잘 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규철은 중국에 사는 친척의 전화번호가 적힌 이모의 수첩과 자전거 한 대를 들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접경 지역으로 향하였다. 처음 탈북을 시도한 후 4년 만이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탈북을 하게 된 데에는 중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게 작용했다. 어머니가 탈북을 했고 자신도 탈북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위부 감시가 붙고 군대도 갈 수 없어 ‘미래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 결국 좀 더 풍요롭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찾아가기 위해 북한을 떠났다.

(2) ‘공식적’ 한국 사람 되기

탈북 후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남한에 정착한 어머니와 연락이 닿은 최규철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약 2년간을 중국 내지의 한 대도시에 머물렀다. 그곳은 접경 지역 도시에 비해 안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어학 공부를 하며 기초 학습 능력을 다진다. 처음에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최규철은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다. 중국어를 배우는 수강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는데, 탈북자 신분이었던 그는 신분 노출의 위험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한국인들과 친분을 나누기 어려웠다. 중국어 학원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로 얘기를 나누면 되었지만, 대화 과정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한국 문화를 자신은 모르는 것이 탄로 날까 봐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중국어로 ‘리액션만’ 했고,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다. 1년 정도 지나 중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자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영어 학원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 마음을 졸이지 않고 한국인이라

고 말할 수 있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지방 도시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따라가서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탈북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고등학교에 편입해 공부를 해도 되었지만, 북한에서의 학업 공백과 중국에서 지낸 기간 때문에 연령 차이가 많이 나서 고등학교 편입이 아닌 검정고시를 택했다. 어머니는 한국은 “일단 공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하시면서 서울대학교 입학에 권유하셨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탈북 학생 전형 실시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수능 성적이 요구되었다. 최규철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대학 진학이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입학에 목표로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했다’. 중국에서 학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어 학원 생활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말도 별로 안 하고 집중해서 공부만 하는 것은 북한에서 못 해본 경험이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친구들에게는 처음부터 자신은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신기해하고 북한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지만, 입시라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2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그는 마침내 입시에 합격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갔다는 게 스스로 대견하고 신이 났다. 서울대학교는 탈북 학생이 많지 않아 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탈북 학생들끼리의 모임도 없다. 최규철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공부, 특히 글쓰기이다. 북한에서도, 수능 학원에서든 글쓰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해봤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혼자서 책을 보고 글쓰기 연습을 하고 학교 포털

의 정보를 활용해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혼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친구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마음이 잘 통하는 북한 출신 친구와 남한 친구들이 두루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다. 북한 출신 친구들은 모든 얘기가 항상 북한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화의 폭이 넓지 못하다고 느낀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지만, 자신이 새롭게 배울 점이 많지 않다. 가능하다면 남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문화에 빨리 끼어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남한 친구들과는 게임, 스포츠, 여자 친구, 공부 등 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남한 친구들을 통해서도 남한의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고 중국 생활을 통해 체험한 것 등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자신이 얘기해 주기도 한다. 처음에는 자기 말을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PC방이나 단체 게임 등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자신이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다. 친구들에게 북한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말했고 친구들도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올 때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 대답을 해준다. 곤혹스러운 질문을 할 때는 일반 주민에게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북한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솔직히 잘 모른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친구들도 자신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정치적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최규철은 다른 탈북 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양호한 환경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나갔다. 우선, 탈북 과정에서부터 경제적·정서적으로 뒷받침해왔던 어머니와, 남한 사회에 기반을 갖고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있었고, 중국에서의 학습 경험과 본인의 뛰어난 학

습 능력과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 처음 경험하는 단체 생활인 대학 생활을 주변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나갈 수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것이 남한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 공부가 어렵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전기가 없어 등잔불을 켜고 ‘쿿구멍이 새까매지면서’ 공부를 했던 생각을 하면 ‘밝은 불도 있고 책도 많고 학원도 많은’ 이곳에서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한 친구들은 자신을 ‘실실대는 허당’인 성격 좋은 아이로 생각하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했던 것을 겪어내면서 강하고 인내심 있는 ‘악바리’의 기질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융 계통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2) 류선옥

(1)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2009년 가을, 연구자는 또래의 남한 청소년과 구분되지 않는 용모에 서울 말씨를 구사하는 앳된 얼굴의 탈북 청소년 류선옥을 처음 만났다. 우리는 2010년 여름에 다시 만나 그녀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된 2014년 초에 또다시 만났다.

류선옥은 1980년대 후반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개와 말이라는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자신의 생애사 구술을 시작하였다. 할아버지는 남한 출신이며, 할머니는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류선옥의 아버지는 좋지 않은 출신 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과 차별을 겪었다고

한다. 류선옥의 생애 진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는 그녀의 아버지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에 다니다 중퇴했고, 의사로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의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동료들보다 항상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던 아버지는 의과대학 졸업이라는 자신의 소원을 큰딸인 선옥에게 투사했다. 아버지는 그다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딸의 대학 뒷바라지를 위해 따로 돈을 모았고,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자 결혼시킬 때 해 보낼 가구를 만들 나무를 미리 구해다 놓을 정도로 만딸을 유독 아꼈다. 그러한 아버지를 류선옥은 무척 존경했고,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았다.

류선옥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 지지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공부를 잘했고,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소년단과 사로청의 간부를 도맡아하는 모범생이었지만, 또래의 여느 북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기성세대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청소년 특유의 의식을 형성하였다. 그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라고 일컫는 최악의 경제난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2000년대 들어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교과서와는 다른 현실이 눈앞에 벌어졌다. 선옥은 자신이 책에서 배운 바와는 다른 북한의 사회 현실을 보면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녀는 중학교 5학년 때 남한 영상물을 접하고는 밤잠을 자지 않고 거의 중독이 될 정도로 이에 빠져들었다. 남한 영상물에서 그녀의 관심을 끈 대목은 남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상이나 정치적인 부분보다도 남한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의 다양한 가능성이었다.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일하고 싶은 분야의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벌 수 있는 남한의 젊은이들과 달리,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출신 성분을 타고 태어난 자신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학교를 졸업한 류선옥은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는 대학을 다니는 데 상당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가의 교육 예산 지원이 감소하여 책값이나 생활비 등 대학 생활에 드는 개인적인 비용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세 부담’이라고 부르는 각종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거두어 대학 운영에 드는 재정을 확충했기 때문이다. 선옥은 한편으로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되었고, 한편으로는 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의과대학이 아닌 3년제 간호대학에 진학한다.

류선옥이 다니는 대학교가 위치해 있던 곳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녀의 고향과는 달리 대도시였다. 주민들 간의 빈부 격차도 크고 사람들의 의식도 좀 더 개방되어 있었다. 생전 처음 고향이 아닌 타지에 나가 생활하게 된 그녀는 이러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고향에서는 자기 가족이 그런대로 잘사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도시 주민들의 생활상과 비교해보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해 취직한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지식해서 장사에도 소질이 없는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부모님 신세를 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북한에서 사는 이상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았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이때 류선옥에게 남한은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다가왔다. 남한에 가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가고 돈도 벌어서 부모님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즐겨 보았던 남한 드라마의 영향이기도 했다. 남한 드라마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짬짬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보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다. 류선옥이 자신의 인생행로를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탈북과 남한행이라는 결단은 발전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북한 사회의 삶에 안주하는 대신 좀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한 모험이었고, 출신 성분과 경제적 제약 속에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었다. 2007년 그녀는 중국과 태국을 거쳐 탈북한 지 몇 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2)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

탈북 후 류선옥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시련을 맞이한다. 탈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녀는 고난, 시련, 파국과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다. 동남아의 탈북자 수용소에 몇 달간 머무르면서 북한에서는 해보지 못한 고생을 했다. 수용 인원이 많아 앉아서 잘 자리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돈이 없어 갖은 고생을 하고 도둑 누명까지 썼다. 탈북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남한에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낯설고 힘든 삶의 시작이었다.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그녀가 세운 두 가지 목표는 의과대학에 진학하

는 것과 돈을 벌어서 집에 송금하는 것이었다. 하나원 진로 상담 과정에서 의과대학 진학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간호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진로를 바꿨다. 미성년이었던 그녀는 일 년간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에서 생활하였다. 두 번째 인터뷰 때 류선옥은 대학 진학 전까지의 일 년 남짓한 기간이 육체적·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했다. 그룹홈의 식구들 말고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이 외로움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부모님께 송금하기 위해 학원 다니는 틈틈이 시간을 쪼개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하 바닥일’부터 할 결심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첫 일자리는 서점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큰 소리로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입국한 지 1년 반 만에 류선옥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부족한 영어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영어 학원에 다녔다. 그녀는 잠을 줄여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친 듯이 살았다’.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다. 첫 학기에는 탈북자가 몇 명 없는 학교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다음 학기 때부터는 차차 공부하는 방법에 익숙해졌고,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생겼다. 정착 초기에 그녀는 ‘한국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남한 말투를 금방 익혔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밝히지 않으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이 비록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며, 북한을 외면한다는 것은 ‘내 자체가 인정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류선옥은 통일, 북한과 관련된 활동과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탈북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남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강사로 참가하였다. 그녀는 이 일이 남한 학생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고, 남한 학생들이 북한을 더 잘 이해할수록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은 그만큼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일에 보람을 느꼈다. 북한인권운동 단체의 모임에도 종종 참석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힘과 에너지를 주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다.

갓 스무 살의 여학생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혼자서 겪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일들은 잊어버리는 연습을 했다. 그녀는 가치관 형성이나 진로 결정과 같은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을 혼자서 수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행의 중요한 이유였던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북한에 있는 동생을 남한으로 데리고 올 결심을 하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동생의 탈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류선옥은 학교를 휴학하고 비서직으로 취업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낀, ‘최대의 고비’였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유흥업을 권하는 사람도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쉽게 돈 버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까지를 다 버리는 것’으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병원 추가 진료 간호 보조나 안내 일을 하며 ‘몸부림치면서’ 살았다. 일 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동생과는 몇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동생을 외국에 일 년간 어학연수를 보낼 정도로 부모 노릇을 툭툭히 하고 있다. 그녀는 복학 후 학교 공부를 계속해나가면서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과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만났던 2010년, 류선옥은 자신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방탕한 길로 빠지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약 4년 후에 이루어진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그간 자신의 삶에 대해 ‘잘 버티면서 살았다’고 표현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류선옥이 자기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항상 강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자아 개념이었고,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고, 자신이 무너지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남한 사회가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탈북이 ‘선부른 결단’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남들이 못 입는 ‘대학생 치마’를 입고 성취감을 가졌던 북한에서의 생활에 비해, 여기서는 자신의 자존감과 만족감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도 자유가 있는 이곳에 자신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3) 이효선

(1) 어느 순간 갑자기 ‘파라다이스’로

20대 초반의 여학생 이효선은 양강도의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라났다.¹⁰⁾ 경제난이 한창일 때 소학교에 입학했고 남들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부업을 하셔서 경제 형편이 곧 나아졌다. 당원인 아버지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으며’, 어머니는 어려운 시기에도 ‘무조건 학교에 가야한다. 아파도 가야한다’고 말할 정도로 교육을 중시하셨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효선은 탈북하기 전까지 결석하는 일 없이 성실히 학교를 다녔고 성적도 우수했다. 그녀의 의식 형성에서 학교 교육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학교 생활은 방과 후에 밭에 가서 일하고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농구하며 놀았던 기억, 시험 기간에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를 같이 외우면서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 고난의 행군기에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댁에 가서 일을 도왔던 기억 등이다. 방과 후 작업이나 혁명 역사 암기와 같은 일들은 그녀에게 지루하고 고된 과업,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소학교 때 반에서 가장 먼저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소년단 넥타이를 땀던 기억도 생생히 남아 있다. 입단 선서를 하고 소년 단원의 의무를 외우면서 충성심을 가지고 ‘의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일성 생일날에는 꽃을 꺾어 초상화 앞에 바치면서 충

10) 이효선과 연구자는 2013년 여름과 2014년 봄, 총 두 차례에 걸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진리 그 자체였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지만, 북한 교과서의 내용과 주변에서 들은 것이 다를 때에도 국가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지만, ‘배운 건 배운 거고, 내가 직접 들은 건 들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했다. 김일성, 김정일 역사를 배우면서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당연히 다 맞다. 항상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다. 북한에서 공부할 때 그녀의 유일한 롤 모델(role model)은 김일성, 김정일이었다. 나라를 돌보느라 식사할 시간이 없어 쫄면밥을 먹으면서 인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부를 좋아했던 그녀는 수학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군제1중학교 편입 시험을 합격했고, 4학년으로 편입을 며칠 앞둔 2005년 봄, 가족과 함께 탈북하게 된다.

이효선은 자신이 남한에 오게 된 과정을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에 왔어요”라고 설명한다. 어렸을 때부터 따랐던 외삼촌은 ‘세상에 먼저 눈을 뜬 사람’이었고, 외삼촌의 탈북에 이어 외가 식구들이 여러 명 탈북하게 된다. 어머니는 외가 식구들의 탈북으로 인해 효선이 대학 진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가족이 다 같이 탈북하기를 권유했다. 본인이 탈북을 적극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한에 정착한 친척들이나 중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네 이웃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결정에 따랐다. 두만강을 넘어 만난 중국은 가로등 불빛, 승용차, 조미료 맛이 나는 과자, 묵었던 집에서 ‘엄청 많이 삶아 준 계란’, 멋있는 집 등

‘환하고 멋있는’ 곳으로 각인되었다. 탈북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지만, 큰 고생은 하지 않고 탈북한 지 한 달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2) 차이 극복하기

이효선은 앞의 두 사례와는 달리 남한의 정규 초·중등학교 교육을 장기간 받았다. 북한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7년간 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에 와서 교육체제가 다른 점을 염려해서 학령을 2년 낮추어 초등학교 6학년으로 편입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7년간 초·중등학교를 다녔다. 효선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에 바로 입학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이주 이후 상당한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 학생들과 학교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북한의 학교생활을 통해 내재화했던 가치관과 남한 사람들의 가치관 및 사고방식의 차이, 청소년 문화의 차이, 자신이 상상했던 한국 사회의 모습과 현실과의 차이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효선이 다녔던 중·고등학교에는 탈북 청소년이 여러 명 있었고 지원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도 계셔서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중학교 때는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학생들에 대한 헌신성을 갖춘 탈북 청소년 담당 선생님을 롤 모델로 삼았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나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는 북한과 많이 달랐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위계가 분명한 북한에 비해 남한은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친구 관계 같았고, 학생들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경우도 있어 좋지 않게 보였다.

이효선은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다. 처음에는 북한을 가난하고 주민이 굶어 죽는 나라로만 인식하는

친구들의 시선에 ‘짜증이 났다’. 자신의 고향은 그렇게 못사는 곳이 아니라고 항변도 많이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5년간은 햄버거, 피자 같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가수, 노래, 드라마, 스포츠 등 청소년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5년쯤 지나니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게 되고,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도 많이 생겨 친구들과 충분히 공감하면서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남한의 모습은 탈북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녀가 북한에서 상상했던 한국은 “이밥도 막 먹을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든 다 실현이 되는 나라”였다. 심지어 “리모컨 하나 누르면 에어컨이 막 나오고 막 지붕이 열리는 파라다이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살아보니, 사회적 범죄와 비리 등 부정적인 면도 많고,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측면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한편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도 싹텄다. 북한에서는 탈북했다가 잡혀와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감옥에 가야한다거나 뇌물을 써서 빼내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보면서 북한 정권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 못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중학교 때까지는 다른 데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졌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시험을 보고 나면 배웠던 내용을 싹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고등학교 때 반에서 왕따인 친구를 혼자 감싸주다가 자신도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효선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 친구들과 겉으로는 잘 어울렸지만 학교 친구들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데 대한 염려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자신이 “큰 일을 하나 해내든지 아니면 정말 공부를 잘하든지 해야” 그런 마음이 극복될 것 같았다.

이효선은 2012년에 탈북 청소년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공부는 가장 큰 근심거리이다. 특히 영어 강의와 영어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전공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도 포기자라는 말을 듣기는 싫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효선은 연구자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자신이 아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탈북 학생들이어서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가입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1년 후에 다시 만난 그녀는 북한 출신 친구들에 대해 이전보다 깊은 애정과 정서적 유대를 표현했다. 그녀가 대학에 와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 동아리의 친구들이다. 공부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 친구들과의 모임이다. 이 친구들과과는 ‘딱히 얻는 것은 없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는’ 관계이다. 그녀는 이 모임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학교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맺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 관계가 없다면 굉장히 공허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남한 친구들과과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지만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고 편하지 않다.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남북한의 친구들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남한 친구들과는 문화적 코드가 달라 마음이 편하지 않고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남한 친구들과는 항상 더치페이(dutch pay)를 하지만 북한 친구와는 굳이 따지지 않고 형편에 따라 돈을 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맛집을 선호하는 문화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학교도 오래 다녀서 한국 친구들과 통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효선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 탈북자 단체에 몇 군데 다녀보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 강의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인 반면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어 틈틈이 하고 있다. 주로 북한 사회와 북한에서의 생활에 관해 얘기하는 통일교육 강의를 하면서 북한에 관한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소통이 잘되었을 때는 보람이 느껴진다. 남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서로 간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이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에 본인이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 탈북 청소년의 경계 가로지르기

경계는 안과 밖을, 자신과 타자를,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그 차이

를 드러내는 구별의 선이며, 특정 대상에 대한 분리와 배제와 금기의 선이기도 하다. 발리바르(Etienne Balibar)에 의하면, 국가의 영토적 경계로서의 ‘국경’은 국민국가의 위기 속에서 좀 더 일반화된 경계로, 곧 이주민들, 난민들, 외국인들, 소수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경계들로 확장된다.¹¹⁾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의 국경을 넘는 순간 무국적자로, 난민으로 제3국을 떠돌게 되고, 남한 사회로 이주한 후에도, ‘적대국’인 북한 출신의 주민으로, 이주자로, 때로는 한민족으로, ‘경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 글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을 벗어나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한이라는 또 다른 공간적·사회적·문화적 영토에 들어와 생활하는 과정을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으로 보고, 이들이 체험하는 영토적·사회문화적 경계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토적 경계 경험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 과정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경계는 국경이라는 가시적 경계이다. 국가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월경은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최규철과 류선옥은 10대 후반에 스스로 브로커를 찾아 국경을 넘었다. 그들은 북한에서 청소년 문화의 영향과 탈북-복송 경험으로 남한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남한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남한행을 결심하고 국경을 넘었다. 탈북 과정에서

11)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 『대중들의 공포: 맑스 전과 후의 정치와 철학』, 서관모·최원 옮김(서울: 비, 2007), 445~478쪽; 최병학, “‘경계’로 본 이란 영화,” 『철학논총』 제66집 제4권(2011), 383쪽에서 재인용.

의 능동성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경계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선옥의 생애 사례에서는 보호자나 사회적 지지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크게 좌절하거나 중심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난관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돋보이는데, 그 원동력이 된 것은 부모의 기대와 탈북이라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다.

영토적 경계 체험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경계 체험을 동반한다. 두 만강을 넘은 탈북 청소년들의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각인되는 것은 북한과는 다른 도시의 풍광, 그중에서도 거리의 환한 불빛이다.¹²⁾

저는 북한에서 뭐 밝은 세상에서 사는, 밝은 이런 불이, 전구가 켜지는 그런 곳에서 산 적이 솔직히 몇 시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이라는 시간에서 맨날 그 밝은 세상, 길거리 나와도 다 그 전구가 비치고, 그리고 네, 특히 뭐 진짜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신기했고 또 너무나 북한하고 너무나, 그때 좀 비교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북한이랑 중국이랑. 워낙 북한에서 듣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는 더 못산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교육 자체가 또 그렇게 시켰고. 남한보다 진짜 거의 우리보다 거지가 더 많고, 더 못산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죠. 완전히 와 진짜 당하고만 살았다

12) 국경선을 넘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중국 지역의 ‘불빛’은 강력한 경계 체험을 선사한다.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대도시, 또는 국경 너머에 보이는 중국 도시의 불빛은 부러움과 호기심의 대상이며, 개명되고 발전된 세계라는 심상적 상상, 일종의 세계에 대한 판타지로 작용한다(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171쪽).

는. 네, 그런 생각. …… 뭔가 비교 대상도 없었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네, 한 번 이런 뒤, 2004년 제가 탈북을 한 다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충격을 너무나 먹었고(최규철 구술 녹취록, 2013 I/5-6).¹³⁾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최규철의 경우 열두 살 때 이루어진 일주일간의 1차 탈북 기간의 영토적 경계 경험은 ‘길거리의 전구’와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이라는 문화적 경계 경험으로 연결되고, 이는 그간 국가 교육과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던 가치체계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후 장사 경험, 청소년 문화의 노출, 대북 방송 청취 등 일련의 경험을 거치면서 최규철은 『로동신문』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세계와 결별한다. 여기서 탈북을 통한 영토적 경계 경험은 최규철의 인식 구조상에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초래하고, 비교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관점전환학습’을 촉발시킨다.¹⁴⁾

한편, 중국에서의 영토적 경계 체험은 남한 입국 과정에서 체감하는 경계 경험의 강력함을 희석시킨다. 최규철의 경우에는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진짜 맨붕’이 왔던 반면, 탈북 후 외국인도 많고 변화한

13) 이 글에서 녹취록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괄호 안의 표시는 최규철의 2013년 첫 번째 구술녹취록 중 5~6쪽에서 인용한다는 뜻이다.

14) 메지로우(Jack Mezirow)에 따르면 학습이란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개정해나가는 과정이다. 즉 학습은 이후 행동의 지침으로서 현재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의 해석을 사용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미 관점을 형성해 나가는데, 자신의 의미 관점에서 타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거나 일상적으로 문제 해결이 곤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의미 관점의 재검토와 전환이라는 ‘관점전환학습’이 일어난다. Jack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Jack Mezirow(ed.), in *Learning as Transformation*(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 5.

중국의 대도시에서 살다 오니 서울은 ‘진짜 우리나라처럼 느껴졌다’. 고 말한다. 탈북 과정에서 5개월간 중국과 제3국을 거쳤던 이효선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물질적 풍요함에 놀랐던 데 비해 한국에 들어와서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고’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첫 번째 영토적 경계 넘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이후 삶의 과정에서 이들이 경계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규철은 입국 전 2년간의 중국에서의 경험이 “조금 더 배우고, 좀 더 넓은 세상을 좀 보고, 그러다보니깐 그냥 여기서(한국에서) 제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한다. 그에게 탈북이라는 영토적 경계 경험은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배움의 기회였던 것이다.¹⁵⁾ 탈북자 신분이 적발될 위험이 상존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최규철은 낯선 지역의 영토적 경계 경험을 학습의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영토적 경계 넘기가 가져다 준 인식의 확장은 한국 정착 이후에도 이

15)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재학 중인 일반 청소년 805명과 탈북 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탈북 청소년과 일반(남한) 청소년에게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는 비율은 탈북 청소년(37.3%)과 일반(남한) 청소년(36.1%)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일반 청소년의 45%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30.9%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라고 응답한데 비해, 탈북 청소년들은 60%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18.7%가 ‘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맹영민·길은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35~139쪽). 이러한 조사 결과는 탈북 청소년들이 어학연수 등 구체적인 교육의 기회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탈북 과정에서의 경계 경험이 일종의 학습 경험으로 작용하였고, 이후의 삶에서도 영토적 경계 넘기를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학습의 기회로 사고하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진다. 최규철은 탈북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는데, 가는 곳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인식의 차이를 발견한다. 예를 들면 그는 태국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나 화장실 처리 방식을 미개함의 증거로 보지 않고 문화적 풍습이 다른 것으로 해석한다. 영국에서는 지하철 개찰구의 검표기가 없는 것을 보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 최규철은 여러 번의 영토적 경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북한과는 다른 남한의 문화와 관계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한 대학에서 교우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탈북 과정에서 시작된 영토적 경계 경험을 친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류선옥은 영토적 경계 경험을 고난과 시련으로 기억한다. 인신매매와 같은 험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5개월간의 탈북 과정에서 난생 처음 부모라는 뒷배경 없이 무시와 협박을 당하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체험을 한다. 그녀의 뇌리에 박힌 중국은 ‘북한 여자를 생각하는 관점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는 점이다. ‘깡패 같은’ 중국 안내인의 눈치를 보고 경찰에게 잡힐까 숨죽이고, 음식도 안 맞아 고생하면서 탈북 한 달 만에 도착한 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탈북자 수용소 생활이었다. 류선옥의 영토적 경계 경험의 과정은 북한의 공민에서 이등 국가의 힘없는 여성으로, 범죄자로 정체성이 변화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그녀는 한국에 정착한 후 ‘제대로 된 신분’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 그렇지만 수용소에서 힘들었던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 자신이 내린 진단에 의하면, 그때의 기억은 너무 힘든 기억이어서 스스로가

그 기억을 ‘억압하고 고립시킨’ 것이다. 태국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일본, 필리핀 등을 여행과 자원봉사로 가봤지만, 어디를 가나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컸다. 그녀는 ‘한곳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 곳은 한국이다. 류선옥은 첫 영토적 경계 넘기의 경험을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학습 경험이라기보다는 견디고 극복해야 할 시련으로 해석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녀는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부딪히는 경계들을 견디고 버텨야 할 무엇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해왔다.

탈북 청소년들은 여러 영토적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에 들어온다. 세계화의 구호에 점령당한 우리 사회에서 영토적 경계 경험은 탈북 청소년들만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이 일반 청소년들과 다른 점은 이들의 영토적 경계 경험은 스스로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들이 살았던 북한이라는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와 영토적 경계 경험을 통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사회 간에, 이전에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탈북 청소년들의 생애 사례는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영토적 경계의 높이와 결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은 ‘탈국가적 상상력’¹⁶⁾이나 이산민 특유의 유동성¹⁷⁾을 만들어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삶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와 적응 의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6)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265쪽.

17) 장수현,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체성: 중국 위해의 한국 화교에 대한 사례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1권 제2호(2010), 264쪽.

2) 사회문화적 경계 경험

경계는 영토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적 확장과 내부적 구심점을 확보하는 강도의 운동 원리를 기반으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차원으로 전이되고 중층화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구조화는 배제와 포섭, 차별화와 포섭이라는 기제를 만들어내면서 지구촌의 특정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인 경계를 구축해왔다.¹⁸⁾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와 탈북 청소년들은 그와 같은 경계짓기의 대상이다. 남과 북 사이의 ‘국경’은 지리적 국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상상, 재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작동한다.¹⁹⁾ 언어, 문화적 취향, 생활습관 등은 적대적 대상인 ‘북한’과 탈북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어 내며 이들을 우리로부터 구별해내고 타자화하는 주요 기표이다.²⁰⁾ 그 중에서도 사투리와 억양, 옷차림 등과 같은 요소가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화된 구분의 지표들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자와는 달리 탈북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지만, 이들이 구사하는 ‘북한말’은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경계를 체감케 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

18) 고지현, “지구화와 국민(민족)국가: 경계의 문제,” 『사회와 철학』, 제19호(2010), 1쪽.

19) 김성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22권 2호(2012), 119쪽.

20) 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탈북 청소년들 자신도 남북한 사람들 간의 신체화된 구분에 근거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규철은 중국에서 처음 한국 사람들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억양이 다르고 또 생긴 것도 좀 저쪽 위쪽 사람들이랑은 좀 여자고 남자고 다 다른 거 같고. 그래서 이게 한국인이 맞나, 지금 우리 민족이 맞나 싶을……. 그 정도로 그냥 그런 인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니, 반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감도 좀 있었고”(최규철 구술녹취록, 2014, I/14).

소이다. 류선옥은 입국 직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언어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경계 경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냥 말 안 하구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또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알바해두 너무 힘들었어요. 시선 같은 거. 그러구 말두 빨리 못 고치…, 말 그만하면 빨리 고친 건 맞는데, 그래두 서울 사람들은 딱 알아보잖아요, 말 사투리 쓴다고. 그래가지구 “어디서 왔어? 고향이 어디야?” 이러면 물론 지방 어디를 대두 좋겠지만 못하겠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 그냥 “거기서 왔어요.” 이러구 다 말했어요, 솔직하게……. 그 왜 “아, 그러냐구, 어떻게 왔냐구.”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산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두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랬는데, 어쨌든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 그리고 말하는 데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크게 말 잘 못하구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당황해하구 …… (류선옥 구술 녹취록, 2010 I/11-12).

탈북자가 말을 하는 순간은 그들과 남한 사람간의 차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들을 타자화시키는 사회적 경계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우리 내부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심리적 경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성인의 경우 이와 같은 경계 경험은 직장이나 주거지 등의 사회생활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수없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경계와 편견, 차별에 대한 우려는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는 주된 이유가 된다. 맹영임·길은배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의 반수 이상이 자신이 탈북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42%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뿐 아니라 남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반수 이상이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64%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²¹⁾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타자화의 경계가 실재하며 또한 다수자인 남한 사회의 구성원 역시도 이를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옷차림 등의 취향, 대중문화, 게임 등 놀이문화, 공부방법 등은 탈북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화적 경계들이다. 대중문화의 콘텐츠와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속에도 북한과 북한주민을 타자화하는 문화가 숨어있다. 예를 들어 최규철이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공산당게임’을 보자. ‘공산당게임’은 ‘누구 나와라’하며 친구의 이름을 지명하면,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을 지명하고, 세 번째로 호명된 사람이 무조건 술을 마시는 게임이다. 최규철은 “공산당이 뭔가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공산당 게임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규철은 친구들과 이 게임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당황한 느낌을 갖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탈북 청소년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게임에 참석한다면 자신이 ‘공산당’과 동일시되면서 타자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표면적인 문화적 차이를 비교적 빨리 인지하고 습득하며 자신을 맞추어나간다. 나이와 사회적 접촉 기회,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어도 5년이면 이러한 문화적

21) 맹영임·길은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19~125쪽.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탈북 청소년들은 말한다. 더군다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나이가 어린 탈북 청소년일수록 남북한의 청소년문화의 차이로 인한 경계 경험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 확률은 적어질 것이다.

이에 비해, 사고방식과 관계 맺기 방식은 보다 근본적인 문화적·사회적 경계로 작용한다. 이효선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남한의 정규교육을 이수했고, 남한 친구들에게 ‘상담 잘 해주는 착한 친구’라는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자신과 남한 친구들을 구분 짓는 경향이 있다. 그녀의 생애 사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때 겪었던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 이와 같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 친구를 감싸주다가 자신도 어려움을 당했다. 그 친구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자신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결국 친구들에게 그 친구와 밥을 같이 먹지 말 것을 종용당하고 결국 비슷한 취급을 당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니, 너도 어려운 처지이니 방과 후에 다른 친구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셨다. 그 후 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스스로 친구들과 속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애초에 사회문화적 경계짓기와 타자화의 대상이 된 것은 북한에서 온 효선이 아니라,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항상 똥해 있는’ 남한 출신의 친구였다. 효선은 그 친구를 편드는 과정에서 그 친구와 함께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고, 곧 관계를 회복하지만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 맺기의 방식을 보여주었던 남한 친구들과의 심리적 경계를 스스

로 설정한다. 특정한 대상을 타자화하고 낙인찍고 금기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상성’을 확인하는 남한 학생들의 관계 맺기 방식은 공부와 놀이와 노동과 생활, 이 모든 것을 친구들과 함께 했던 북한의 학창시절 경험을 간직한 효선에게 매우 낯설고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 사례는 우리 학교 현장에, 청소년 문화 속에, 경제적 능력, 성별, 외모, 인지능력 등 수많은 배제와 차별화의 선들이 존재하고,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 출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다양한 배제와 차별화의 경계들이 얽혀 있는 지점에 서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 출신’이라는 범주로 타자화되는 탈북 청소년들이 때로는 북한 출신이라는 경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른 종류의 경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류선옥도 남한 사회의 경쟁 중심적 문화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와 영화에 심취해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누구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드라마의 모습과는 달리 한국 사회는 사람들 간에 정이 없고 차가운 경쟁 사회일 뿐이라고 느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싫은 마음도 감추고 웃으면서 가식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웃는 게 모두를 편안하게 해 준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의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남한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에 기반을 둔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저희는 (북한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같아서. ……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딱 그런 걸 깨달아 …… 남한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해서, 원래 가졌던 그런 게 …… 북

한에서 원래 가졌던 그런 마음대로 사는 게, 사람이 참 잘 사는 거 같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 지금 그냥 여기 식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돼 가고,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 그러다가 실패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많이 만나고, 애가 잘 안 해주면 차버리고, 뭐 이런 거. 예전엔 그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돌아온다, 이런 거를 느꼈죠(류선옥 구술 녹취록, 2014 I/19).

이효선도 류선옥도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방식에서 남한 사회의 규칙과 방식을 이해하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이와 타협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적용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상호 작용 양식, 사회문화적 경계에 대한 대응방식은 ‘부적응’과 구분되는 ‘비적응’으로 명명되기도 한다.²²⁾

4.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 재구성

모든 종류의 경계는 나와 타인을 구분 짓는 것으로,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가 없는 정체성은 없다. 타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안에 존재한다. 정체성은 과정이고 쪼개진 틈이며,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양가적인 지점이다. 정

22) 심원은 탈북 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상호 작용 양식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적응’과 구분하여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비적응’이라 명명한 바 있다. 심원,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129쪽.

체성은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이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 과정과 남한 사회에서 여러 층의 경계를 마주하고 부딪치고 튕겨져 나가고 뛰어넘고 때로는 이용하면서 이리저리 경계를 가로지르는 과정은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인격의 동일성, 즉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 확립된다. 현재의 내 정체성은 과거의 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내 육체와 정신에 남긴 흔적들의 영향 아래 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나는 기억한다’들이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²⁴⁾ 탈북 청소년들의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동기, 이주 경로는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자신의 위치 설정 등을 결정짓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북한에서의 자기 정체성과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만들어낸다.²⁵⁾

최규철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열두 살 때 첫 탈북을 시도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체제에 충실한 아버지의 영향하에 모범생으로 살아왔다. 일주일간의 탈북과 복송 이후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된 그는 마침내 탈북에 성공하고, 중국에서 공식적 신분이 없는 상태로 지낸다. 중국 체류 기간 중 ‘북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짓 정체성을 연기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고

23) Stuart Hall, *Ethnicity: Identity and Difference*, p. 345.

24) Alfred Grosser, *Les Identités Difficiles*(Paris: Presses de Sciences Politiques, 1996)[번역본: 알프레드 그로세르(Alfred Grosser), 『현대인의 정체성』, 심재중 옮김(서울: 한울, 2002), 77쪽].

25) 심원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는 결국 ‘북한 사람-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심원,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129쪽.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 증위는 국가적 소속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계층, 성, 사회적 위치, 정체성이 문제시되는 상황 등에 따라 중층적이고 복합적이지만, 이 글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만을 다룬다.

주위의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했다.²⁶⁾ 중국 체류 2년 만에 최규철은 남한에 입국하여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이 된다. 그는 학원이나 학교 등 그가 생활한 모든 장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로 인한 갈등을 별로 겪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면담 도중 연구자가 의도치 않게 정체성 문제로 그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대화의 사례는 그가 남한 사회 어느 곳에서든 처할 수 있는 정체성 갈등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발단은 사권 지 두 달 정도 된 여자 친구에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가가 최규철이 당면한 고민이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서 ‘초를 뿌리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구술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쪽에서의 생활이 저한테 많은, 이런 그런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또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또 앞으로 …… 또 이 나라가 또 통일이 언젠가 되겠지만, 그러면 또 내가 저쪽에 또 가서도 좀 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네, 그 쪽 …… 그러기 때문에 뭐 그냥 그쪽에서 좀 기억을 전혀 잊고

26) 이러한 은신 과정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가져온다. 이향규,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제12호(2007), 8쪽.

싶은 건 아니에요 네, 잊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굳이 내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일단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나는 북한 사람이다’ 이거는 먼저 밝히죠 이거는 먼저 …… 내가 만약에 그게 싫다면 그런 말도 사실은 안 하겠죠 그런 말도 안 하겠죠 그런데 먼저 말한 거는 “나는 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그냥 받아주시기 바라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말해 주겠다” 이런 거죠.

연구자: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나는 조금, 약간 충격 이랄까, 조금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구술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연구자: 그런데 이제 본인 마음속에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동시에 나는 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나봐?

구술자: 그런 생각은…….

연구자: 내가 나쁘다고 결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나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본인한테.

구술자: 저는,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뭐 북한, 북한이라는 그런… 그런 반정부단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연구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구술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별로… 내가 북한…, 아… 이 해석하기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해석하기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북한 사람

이면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난해한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저는 북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죠.

연구자: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정도?

구술자: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태어나기를 그쪽에 태어나서, 나는 원래 한국 사람이지만 태어나길 그냥 그쪽에서 태어난 것뿐이고. 그렇게 생각…….

위의 대화는 최규철의 말을 잘못 이해한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어디에 가건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밝힌다는 최규철의 말을 잘못 해석한 연구자가 탈북 청소년이 지닐 수 있는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자, 최규철은 이를 ‘북한 사람’이라고 말한 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남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를 강요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듯하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러한 방어적 태도가 ‘반정부단체’라는 남한 내 북한의 법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북한 지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결론을 맺었지만, 인터뷰 내내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보이고 북한 출신으로서 통일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론은 어느 정도는 대화의 맥락과 연구자-구술자 간의 권력관계 속에서 강요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입국 후 한국 사람으로서의 ‘공식적’ 지위, 즉 한국 국적을 갖게 됨에 따라 한국 사람이라는 최규철의 정체성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장소와 관계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힌다. 그러나 위의

대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안정되어 보이는 그의 정체성이 일순간 흔들리게 되는 상황, 탈북자의 국가적 소속감을 확인하려 하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라는 양자택일적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은 늘 가까이에 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북 간의 스포츠 경기가 있어 남북한 간의 적대성이나 경쟁적 위치가 부각되는 경우, 탈북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의심의 시선과 선택의 압박은 더욱 강해진다.

류선옥의 생애 사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탈북 청소년들이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는 지점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나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류선옥은 좀 더 나은 삶,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본인의 의지로 홀로 탈북하였다. 그녀에게 남한은 북한에서 마음껏 펼치지 못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었다. 정착 초기에 그녀에게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이 부정하고 숨기고 싶은 정체성이었다.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투도 완벽한 서울 말씨로 고쳤다. 이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때 취하는 대안 중 내집단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심리적 거리를 최대화함으로써 우월 집단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인 ‘이탈’에 해당하는 전략이다. 소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주류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과 갈등의 상황을 피하고 주류집단의 구성원과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2년쯤 지나면서 그녀는 자기 스스로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반대하지만 북한이라는 국가와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연대와 소속감과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라는 고민 끝에 당시 그녀가 내린 결론은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북한 사람, 그냥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연구자와의 세 번째 만남

에서, 류선옥은 남한 생활 7년을 되돌아보면서,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신’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자신과 ‘떨 수 없는’ 대상이고,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이제는 외모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 북한 출신이라는 내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공고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직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또한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을 살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예전에는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강의를 하면서 ‘그냥 멘트로’ 북한과 남한을 잇는 사람이 되겠다는 식의 ‘마음에 없는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미래와 북한을 연결 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고 북한의 의료 분야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크다. 그녀에게 있어 북한 출신 내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정체성은 남한 사회에 대한 대립이나 배타로 나아가지 않고 주류사회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주류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틀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과 관련된 그녀의 고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출신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는 또 다른 문제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마다 북한 출신임을 밝히려 하는지가 늘 고민스럽고, 그런 상황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남한 친구들은 잘 모르는 관계에서는 북한 출신임을 밝히면 상대방이 편견을 갖고 볼 수도 있

다고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뭔가 속이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 또 자신이 통일교육 강의를 하면서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정작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는 이를 망설이는 것이 스스로 이중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북한이라는 특정한 지역 출신을 ‘비국민’, ‘배신자’, ‘가난한 자’로 타자화하는²⁷⁾ 한국 사회에서, 고향을 묻는 질문은 일반적인 남한 사람에게는 개인을 설명해주는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지만, 류선옥과 같은 탈북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 된다. 스스로 정체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류선옥과 최규철의 마음에 남아 있는 불편함은 탈북자를 타자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경계로부터 오는 것이다.²⁸⁾

이효선은 이 글에서 살펴본 세 사례 중 북한 학교 경험이 가장 짧고 남한 학교 경험이 가장 길다. 그녀는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학업과 교우관계의 갈등과, 남북한의 학교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적응했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적응’ 여부와는 별개로 그녀는 북한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북한 출신

27) 강주원, “남한사회의 구별짓기,” 『웰컴투 코리아』(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사, 2006), 94~98쪽. 앞의 생애 사례에서 류선옥이 경험한 세금을 안 내고 혜택을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시선, 이효선이 경험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보는 시선은 탈북자들을 정상적인 시민으로부터 배제시켜 타자화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28)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맹영임·길은배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의 38.8%가 자신은 ‘한국 사람’, 4.5%가 ‘북한 사람’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남한 청소년의 29.4%가 탈북 청소년은 ‘북한 사람’, 16.5%가 ‘한국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맹영임·길은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05쪽.

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녀는 북한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뿌리’이며 ‘죽을 때까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거주 시 이미 북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이나 다른 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이효선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고, 북한의 학교 교육을 누구보다도 잘 내면화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탈북하였다.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그녀의 기억은 친구들과 잘 놀고 즐겁게 공부하고 농사도 지어보았던 ‘좋았던 경험’들이고, 그러한 북한에서의 성장 경험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에도 ‘기초적인 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정치적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면에서는 북한적 특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남한 사회 정착 후 탈북자 밀집지역의 학교에 배치됨으로써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그녀가 과거로부터 단절된 채 남한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북한 출신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과거 경험이 단절된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²⁹⁾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된다. 이들의 정체성은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 탈북 동기, 탈북 과정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29) 이부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47쪽.

의 경계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기에 역사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 부정의 정체성’이나 ‘자기 신화적 정체성’³⁰⁾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나가고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새롭게 해석함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이들의 정체성은 혼종(混種)적이다. 이희영은 국제이주 탈북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새로운 공간을 통과하면서 과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온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증식되는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³¹⁾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도 북한 지역 출신으로서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남한 사회 내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통일 역군으로서의 정체성, 남북한의 연결자로서의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복잡성과 중층성은 부적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경계인들의 정체성의 본질이다. 이는 또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박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랜스 로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지역을 넘어 탈영토화된 상상력을 가진 비판적 문화해석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³²⁾

30) ‘자기 부정의 정체성’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지칭하며, 그 작동 방식은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신화적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의 역군’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은 탈북자가 그러한 기대를 자신의 정체성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215~220쪽.

31)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2013), 384쪽.

5. 결론

이 글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및 이주 과정의 경험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으로 이주 후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에서의 삶은 이들이 남한 사회의 질서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거나 동화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에 부딪히고 이를 넘어서고 가로지르고 때로는 활용하면서, 이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과정이다.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 출신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계들은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배제와 차별화의 경계들과 중첩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경계 자체가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경계 가로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재구성을 동반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 탈북 동기, 탈북 과정,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경계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구성되는 역사성을 지닌다. 또한 이들의 정체성은 혼종적이며, 이러한 혼종성은 부적응의 단서라기보다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 지원 정책은 탈북 청소년들을 배타적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만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32) 조정아, “탈북이주민의 학습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201쪽.

경계 경험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무연고 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에 기인한 경험들이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놓여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장의 맥락 안에서 이들의 다양한 위치성을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탈북 청소년 개인을 생활의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표준화된 지원을 실시하는 것에서 이들이 속해있는 장에 대한 총체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즉 탈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학습부진, 심리정서적 불안,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현해나가는 가운데, 탈북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과 개별화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탈북 청소년들의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들의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각장의 구조의 문제,³³⁾ 즉 탈북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 속의 경계와 수용 문제이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들 개개인이 한국의 학교 체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개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33)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의하면, 타자는 내가 지각하는 대상이나 나를 지각하는 어떤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지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각장의 구조, 즉 구조-타자이다. 김지영, “들뢰즈의 타자 이론,” 『비평과 이론』, 제9권 1호 (2004), 61쪽.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탈북 청소년들이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한 삶의 역사를 부정하고 단절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기 보다는 이들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의 위계질서가 어떤 생활방식과 신념방식을 열등하고 결합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속성을 지닌다면, 이 가치질서는 이와 관련된 개인에게서 그들 자신의 고유한 능력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게 된다. 특정한 자기실현방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절하는 그 수행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활을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의무가 부여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³⁴⁾ 탈북자 집단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삶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남한 사회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나 해외로의 재이주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는 다른 경계 경험과 정체성의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성인탈북자와 탈북 청소년 간의 차이, 청소년 내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검토하지 못하였다. 성, 계층, 가족구성의 차이가 탈북 청소년의 경계경험과 정체성 재구

34) Axel Honneth, *Kampf Um Anerkennung*, Sub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1992)[번역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옮김(서울: 사월의 책, 2011), 255쪽].

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향후 밝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정착 과정의 생애 경험이 삶의 관점과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자료 수집 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함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소 5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두고 수집한 탈북 청소년들의 생애사 서술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정체성 재구성 과정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 접수: 2월 27일 / 수정: 3월 25일 / 채택: 3월 31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맹영임·길은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에티엔 발리바르 (E'tienne Balibar), 『대중들의 공포: 맑스 전과 후의 정치와 철학』, 서관모·최원 옮김(서울: 비, 2007).

이강주 외,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2).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2) 논문

강주원, “남한사회의 구별짓기,” 『웰컴투 코리아』(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사, 2006).

고지현, “지구화와 국민(민족)국가: 경계의 문제,” 『사회와 철학』, 제19호 (2010).

김성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22권 2호(2012).

김유정,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산 경험”(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윤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권 4호(2008).

김지영, “들뢰즈의 타자 이론,” 『비평과 이론』, 제9권 1호(2004).

박서연, “북한 이주 청년들의 진로 모색 과정을 통해 본 생애 전략”(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심 원,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41집(2012).

이부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5권 2호(2012).

이슬기, “북한 이주 1.5세대 여성들의 정체성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이화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향규,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제12호 (2007).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2013).

_____, “사회화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_____,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
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2012).

장수현,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체성: 중국 위협의 한국 화교에 대한
사례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1권 제2호(2010).

정진웅, “적용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
구』, 제12권 2호(2004).

조정아, “탈북이주민의 학습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
호(2010).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4권 2호(2010)

최병학, “‘경계’로 본 이란 영화,” 『철학논총』, 제66집 제4권(2011).

2. 국외 자료

1) 단행본

Alfred, Grosser, *Les Identites Difficiles*(Paris: Presses de Sciences Politiques, 1996).
[번역본: 알프레드 그로세르(Alfred Grosser), 『현대인의 정체성』, 심재
중 옮김(서울: 한울, 2002), 77쪽].

Hall, Stuart, *Ethnicity: Identity and Difference*(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Honneth, Axel, *Kampf Um Anerkennung*(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92).

[번역본: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옮김
(서울: 사월의 책, 2011)].

2) 논문

Mezirow, Jack,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J. Mezirow(ed.), In *Learning as Transformation*(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identiti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Cho, Jeong-ah(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the life history cas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this study observes the experiences obtained in North Korea, process of detection and migration. It explores the process of how the adolescent refugees actively reconstructive their identities. The life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n society is a process of crossing boundaries, overcoming obstacles and at times utilizing such circumstances to present who they are and gain recognition rather than adjusting to or unilaterally being assimilated into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boundaries faced by these adolescent refugees are intertwined by the mix of various different kinds of boundari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s boundaries per se are lines that divide oneself from others, transcendence will accompany the reconstruction of identity.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s the result of a complex accumulation of life experience in North Korea, experience of defection and settlement in South Korea. The issue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y is a matter of whether our society accepts their differences and boundary experiences rather than their adjustment or mal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boundaries, experience of crossing boundaries, othering, identity, life history